

5·18 추모 열기 고조...서울·제주 등 전국서 참배 물결

44주년 앞두고 이달 들어서만 1만명 넘어...추모 인파 해마다 증가세 부산·인천 등 타지역서 잇단 발길...광주 곳곳 토론회·전시회 등 다채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일주일 앞둔 12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국립5·18민주묘지에 5만 466명의 참배객이 찾아왔다.

지난 1월 8886명, 2월 1만 943명, 3월 8482명, 4월 1만 1202명 등 월평균 9800여명이 방문했으나, 이달 들어서는 11일만에 1만 953명이 방문하는 등 참배객이 부쩍 늘었다.

참배객은 2021년 19만 5118명, 2022년 29만 4424명, 2023년 31만 4954명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오전에도 묘지에는 가족, 친구 등 손을 잡고 찾아온 참배객 수십여명이 몰려들어 북적였다.

참배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헌화와 분향을 하고, 오월 영령들이 묻힌 묘소를 둘러보며 묵념을 했다. 묘지 관리소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눈물을 글썽이거나 묘소에 국화를 두고 가는 참배객도 있었다.

최근에는 영화와 유튜브 등을 통해 5·18을 알게 됐으며 멀리 타 지역에서 찾아온 이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 묘지 관리소 측 설명이다.

묘지 입구에 마련된 방명록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타 지역에서 찾아온 참배객의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등 추모 문구가 빼곡했다.

민주묘지 외곽에도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5·18을 잊지 않겠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광주 5·17을 제주 4·3이 기억합니다' (제주교사노조), '그날의 함성으로 국민 승리 그날까지' (6·10민주항쟁 37주년 기념 광주전남행사위원회) 등 60여장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묘지 일대에는 참배객이 직접 써서 걸어둔 글귀가 달린 추모 리본이 빼곡히 들어섰다. 추모 리본에는 '5·18 기억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월의 헌신을 이어하겠습니다' 등 문구가 쓰였으며 'To the heroes of 5·18, Thank you very much' (5·18 영웅들에게, 감사합니다) 등 외국어로 쓰인 리본도 적지 않았다.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광주까지 찾아왔다는 양석동(52)·전해연(여·46)씨 부부는 이날 이른 오전부터 양동근(10)군을 비롯한 세 아들과 함께 묘지에서 참배를 했다.

이들 부부는 최근 막내아들인 동근군이 "유튜브를 보다 군인들이 5·18 때 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쏘는 영화 장면을 보게 됐다. 그날의 역사를 알고 싶다"고 하자 묘지까지 찾아오게 됐다고 했다. 참배 이후 양씨 부부는 민주묘지 곳곳을 둘러보며 자녀들에게 5·18 당시의 이야기와 불의에 맞서는 광주정신을 설명했다.

양씨 부부는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영화 '택시운전사'를 자주 틀어줘서인지 5·18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더라"며 "5·18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해 광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참배를 하러 왔다"고 입을 모았다.

나주빛가람중 박지아(14)양과 김시연(15)양은 역사 동아리 '파이리' 회원 5명과 함께 묘지를 찾았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영상으로 만들어 교내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계기교육을 주도해 보고 싶어 참배를 결심했다.

김양은 "민주 시민으로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초점을 두고 영상을 만들어 친구들에게도 그날의 역사를 오롯이 전해주고 싶었다"며 "영상을 찍기 위해 역사를 직접 체험해 보고 생생한 이야기를



오월영령 추모하는 청년 공무원들

광주시 북구청 청년 공무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묘비마다 손태극기를 꽂으며 오월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도심 곳곳에서 각종 기념프로그램이 잇따르면서 5·18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13일에는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는 민변 광주전남지부, 전남대5·18연구소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의 문제점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에 앞서 5·18기록관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주

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5·18 당시 초등학생이 쓴 그림일기를 바탕으로 5·18을 바라보는 기획전시 '5월 18일, 일요일. 맑음'을 개최하고 있다. 5·18기록관에서는 5·18의 순간들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한 전시회 '기억지도·금남로의 예술가들'도 열고 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는 (사)오월음악이 주최하는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와

(사)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가 추진하는 '오월미술제' 등 행사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추모 분위기는 오는 17~18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제44주년 5·18민주항쟁기념행사 전야제가 오후 7시부터 시작되고, 18일에는 정부기념식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삭감됐던 5·18 역사왜곡 대응 사업비 '부활'

시의회 추경안 7000만원 증액

광주시의회가 대폭 삭감했던 5·18기념재단 역사왜곡 대응 지원사업비를 증액했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1차 예결위에서 5·18기념재단의 왜곡 대응 예산 7000만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다만 시의회의 '2024년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할 것', '다변화한 왜곡·편향 유형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새로운 왜곡 대응 수요를 고려해 세부 사업 기획 등 과정에서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예산 증액은 최근 온라인게임 '로블록스'에서 5·18왜곡 사례가 불거지는 등 5·18 왜곡·편향해가 교묘해지고 있는 데 반해 광주시가 오히려 5·18 왜곡 대응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4월 25일

자 광주일보 7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5·18기념재단에 교부할 역사왜곡 대응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원 가운데 66.7%를 감액한 4650만원만 반영했다.

이번에 의회가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올해 역사왜곡 대응 사업비는 모두 1억1650만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왜곡 모니터링요원 인건비와 법률대응비, 왜곡·편향 언론 모니터링 용역비, 진실 알리기 콘텐츠 제작비, 오월길 안내사업 활동비 등이다.

박갑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부족한 예산으로 왜곡대응 사업을 수행하기에 벅찬 상황에서 다행히 예산 증액이 이뤄져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유형의 왜곡 양상에 대응하려는 요구사항에 맞춰 세부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하자 논란' 무안 힐스테이트오룡 품질 점검

전남도, 부실시공 여부 조사

무안군에 점검 결과 통보

전남도는 최근 하자 논란(5월10일자 광주일보 6면)이 있는 무안 오룡2지구 '힐스테이트오룡'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해 긴급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에는 시공, 구조, 각종 설비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과 입주 예정자 대표 10명, 전남도와 무안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불성실한 마감처리로 민원이 많은 공용부분은 물론 개별세대, 외벽까지 아파트 구석구석을 살피며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하는 등 시공실태 전반을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를 인허가권자인 무안군에 통보했다.

전남도 품질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무안군은 시공사에서 부실시공 부분을 보수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확인한 후 사용검사를 승인하게 된다. 전남도는 과도한 하자 건수로 인한 입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고려해 무안군의 사용검사 전에 조치 결과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공동주택 현장점검을 추가로 시행해 보수가 완료되면 사용검사를 승인하도록 했다. 이날 현장 점검과 함께 진행된 회의에서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 시 접수한 하자 신청(6만여 건) 중 벽체 기밀성 현상에 대해 지난 8일 시행된 구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또 피난구 방화문 손잡이는 관련 법규 검토 후 시공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최근 불거진 아파트 하자 관련 민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건설시공을 유도해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술자리 다툼 말리던 경찰 폭행

영광군 기초의원 불구속 입건

영광군 기초의원이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투다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했다.

영광경찰청은 공무원행방예외법으로 영광군의회 A의원을 불구속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7일 밤 10시 50분께 영광군 한 술집에서 경찰관 2명의 목살을 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이날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의원은 "공인으로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